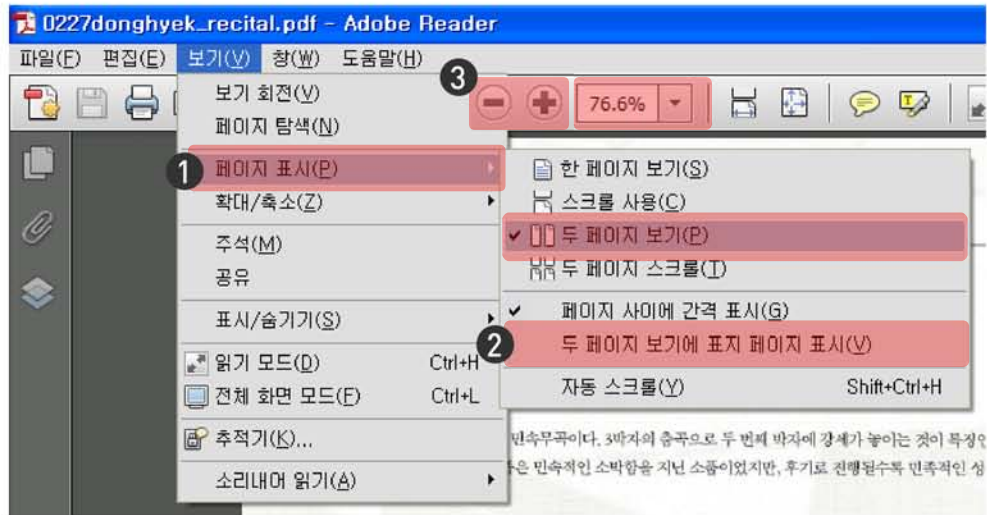


CREDIA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공연의 프로그램북을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아래 안내와 같이 설정해서 보시면 더욱 편하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Guide 1 프로그램북 2페이지씩 보기 (프로그램북이 한 페이지씩 보일 경우)



- 1 PDF reader 메뉴바_보기_페이지표시_두 페이지 보기 선택
- 2 메뉴바_보기_페이지표시_두 페이지 보기에 표시 페이지 표시 선택 해제
- 3 원본 사이즈로 보기
 확대 및 축소는 -, + 버튼 클릭

Guide 2 프로그램북이 2페이지씩 보일 경우 다른 설정 없이 보셔도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MATTHIAS
GOERNE

SEONG-JIN
CHO

and
SCHUBERT



2019 글로벌고객만족역량 조사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부문 1위 대한항공



DELHI

전설과 신비의 땅, 인도에 귀 기울이다

대한항공 델리 노선 매일 운항
델리에서 당신만의 인도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www.koreanair.com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타지마할
Taj Mahal

**Matthias Goerne,
Seong-Jin Cho, and Schubert**

**마티아스 괴르네,
조성진 그리고 슈베르트**

2019년 9월 18일 (수)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8PM Wednesday, September 18, 2019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 Matthias GOERNE, Baritone
피아노, 조성진 Seong-Jin CHO, Pianist

주최 **CREDIA MUSIC & ARTISTS**

후원 **KOREAN AIR 50**

프란츠 슈베르트 1797-1828
오스트리아

방랑자 D 489 뤼베크 시에 의한 곡

우수 D 772 콜린 시에 의한 곡

젊은이와 죽음 D 545 슈파운 시에 의한 곡

명부(冥府) 행 D 526 마이르호퍼 시에 의한 곡

보물 캐는 사람의 욕망 D 761 쇼버 시에 의한 곡

인간의 한계 D 716 괴테 시에 의한 곡

향수 D 851 뤼르커 시에 의한 곡

하프 악사(樂士)의 노래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에 의한 곡

1. 외로움에 몸 맡긴 이 (하프 악사의 노래 I) D 478
2.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이 (하프 악사의 노래 III) D 480
3. 문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하프 악사의 노래 II) D 479

순례의 노랫가락 D 789 쇼버 시에 의한 곡

어부의 사랑의 행복 D 933 라이트너 시에 의한 곡

겨울 저녁 D 938 라이트너 시에 의한 곡

저녁별 D 806 마이르호퍼 시에 의한 곡

여름밤 D 289 클롭슈톡 시에 의한 곡

사랑스러운 별 D 861 술체 시에 의한 곡

본 공연은 중간 휴식 없이 75분간 진행됩니다.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15만 공연애호가들의 선택 Club BALCONY가 제안하는 품격있는 문화예술의 경험과 서비스

클럽발코니와 함께 감동의 문화생활을 설계해보세요!



JOIN Club BALCONY

15만 공연애호가들의 선택 (예매고수의 노하우)
크레디아 기획공연 5~30% 상시 할인
나만의 비서! 티켓 오픈 무료 SMS 서비스
문화애호가의 필수품, Club BALCONY 매거진 무료우송
모바일 회원카드 확인 후 크레디아 기획공연 프로그램복 증정
크레디아 기획공연 단독 선예매 및 예매, 취소, 티켓 배송 수수료 면제
만료 후 재가입 시 할인 혜택



JOIN CIELOS Club

CIELOS 회원만을 위한 프라이빗 음악회, 전시회, лек처 문화행사 무료초대 (동반1인 포함)
CREDIA의 엄선된 공연 패키지 30~50% 할인제공 및 좌석우위
Club BALCONY 평생회원 자격

CREDIA

Club BALCONY & CIELOS Club

@club_balcony_official

www.clubbalcony.com

가입문의 1577-5266

Upcoming Programs

클럽발코니 렉처 프로그램

클럽발코니 x 오드포트 친절한 디토씨의 음악여행

- ↳ 조성진 & 마티아스 괴르네 | 9/5
- ↳ 미샤 마이스키 & 무지크 콜레기움 빈터투어 | 10/17
- ↳ 안네 소피 무터 | 11/21
- ↳ 사라 장 | 12/19

씨엘로스 프로그램

(사)한국문화산업포럼 <The Art of Sharing> | 9/19

Franz Schubert 1797-1828
Austria

Der Wanderer D 489 Text: Georg Philipp Schmidt von Lübeck

Wehmut D 772 Text: Matthäus von Collin

Der Jüngling und der Tod D 545 Text: Josef von Spaun

Fahrt zum Hades D 526 Text: Johann Baptist Mayrhofer

Schatzgräbers Begehrt D 761 Text: Franz Adolf Friedrich von Schober

Grenzen der Menschheit D 716 Text: Johann Wolfgang von Goethe

Das Heimweh D 851 Text: Johann Ladislaus Pyrker

Drei Harfner-Lieder:

1. Wer sich der Einsamkeit ergiebt (Harfenspieler I) D 478
2. Wer nie sein Brot mit Tränen aß (Harfenspieler III) D 480
3. An die Türen will ich schleichen (Harfenspieler II) D 479

Pilgerweise D 789 Text: Franz Adolf Friedrich von Schober

Des Fischers Liebesglück D 933 Text: Karl Gottfried von Leitner

Der Winterabend D 938 Text: Karl Gottfried von Leitner

Abendstern D 806 Text: Johann Baptist Mayrhofer

Die Sommernacht D 289 Text: Friedrich Gottlieb Klopstock

Der liebliche Stern D 861 Text: Ernst Konrad Friedrich Schulze



More than Cinema

음악영화가 가장 완벽해지는 시네마 그 이상의 공간
하이엔드 사운드를 통해 느끼는 최고의 감동



ORFEO

1. 방랑자 Der Wanderer D 489 뤼벡 시, 1816년

방랑자의 슬픔을 노래하는 이 노래는 느린 부분과 다소 빨라진 부분이 이어지는 극적인 구조와 친근한 선율을 가진 테다 아마추어도 부르기 쉬운 점 때문에 슈베르트 생전에 인기를 끌었다. 화가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그림 ‘안개바다 위의 방랑자’와 연계되어 여러 성악가의 가곡 앨범 대표곡으로 애용되고 있기도 하다. 노래는 셋잇단음표의 근심에 싸인 전주로 시작되며 피곤에 지친 방랑자의 실망을 노래하는 부분은 피아노곡 ‘방랑자 환상곡’에 인용되었다. 템포가 조금 빨라져 강렬히 동경의 세계를 꿈꾸어 보지만 다시 현실의 비애를 노래하며 끝난다.

Ich komme vom Gebirge her,
Es dampft das Thal, es braust das Meer,
Ich wandle still, bin wenig froh,
Und immer fragt der Seufzer: wo?

Die Sonne dünkt mich hier so kalt,
Die Blüte welk, das Leben alt,
Und was sie reden, leerer Schall,
Ich bin ein Fremdling überall.

Wo bist du, mein geliebtes Land,
Gesucht, geahnt und nie gekannt?
Das Land, das Land so hoffnungsgrün,
Das Land, wo meine Rosen blühn?

Wo meine Freunde wandelnd gehn,
Wo meine Todten auferstehn;
Das Land, das meine Sprache spricht,
O Land, wo bist Du?

Ich wandle still, bin wenig froh,
Und immer fragt der Seufzer: wo?
Im Geisterhauch tönt's mir zurück:
“Dort, wo du nicht bist, dort ist das Glück!”

나 살던 곳은 산(山)속,
골짜기엔 안개 솟고, 바다 들 끓고,
잠잠히 거닐며 나, 즐겁질 않네
자꾸만 묻네, 한숨 쉬며. 어디일까?

여긴 해조차 이리 차가워 보이고
꽃들 시들고, 인생은 쇠하고
떠드는 말들은, 공허한 음향.
나는 이방인, 어디서나.

어디에 넌 있나, 내가 사랑한 땅,
찾았고, 예감했건만 한번도 못 만나니?
그 땅, 희망의 초록 가득한 땅,
그 땅, 나의 장미들이 꽃피는 곳은?

거기 나의 친구들이 거니는 곳,
거기 내가 잃은 이들이 부활하는 곳,
그 땅, 나의 언어를 말하는 땅,
오 땅이여, 어디에 있나, 너는?

잠잠히 거닐며 나, 즐겁질 않네
자꾸만 묻네, 한숨 쉬며. 어디일까?
유령의 속삭임으로 되 울리네
“거기, 너는 없는 곳, 거기에 있어, 행복은!”

2. 우수 Wehmut D 772 콜린 시, 1822 또는 1823년

약보 한 페이지 남짓의 짧은 이 노래에는 자연을 마주한 사람의 호젓하고 상쾌한 기분과 애상이 교묘하게 교차된다. 가사의 ‘편안(Wohl)’과 ‘괴로움(Weh)’의 비고가 상징하듯 선율선과 화음도 빠르게 장조와 단조 사이를 오간다. 2분의 2박자로 침울하게 시작되다가 중간부분 피아노의 트레몰로에 인도되어 다소 조금한 느낌으로 만물의 무상함을 노래한다.

Wenn ich durch Wald und Fluren geh,
Es wird mir dann so wohl und weh
In unruhvoller Brust.

숲과 별관을 지날 때면
참 편안도 하고 괴롭기도 해,
불안 가득 찬 가슴 속이.

So wohl, so weh, wenn ich die Au,
In ihrer Schönheit Fülle schau,
Und all die Frühling Lust.

Denn, was im Winde tönend weht,
Was aufgethürmt gen Himmel steht,
Und auch der Mensch, so hold vertraut,
Mit all' der Schönheit, die er schaut,
Entschwindet, und vergeht.

참 편안하고, 참 괴로워, 풀밭을,
그 아름답고 충만한 모습을 보면
그 모든 봄날의 흥을.

바람 속에서 울려 오는 것,
하늘 향해 솟아 있는 것,
또 사람, 이리 친근한 그도
그가 바라보는 모든 아름다움과 더불어
사라지기에, 소멸하기에.

3. 젊은이와 죽음 Der Jüngling und der Tod D 545 슈파운 시, 1817년

마성과 연결된 힘이 주인공과 대화하는 점에서 ‘마왕’이나 ‘죽음과 소녀’를 연상하게 하는, 슈베르트에게는 일종의 전형적인 노래다. 한편으로 주인공이 ‘젊은이’라는 점에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작곡가의 운명을 돌아보게 한다. ‘죽음’에게 할당된 부분은 후반부의 두 연 뿐이며, 짧은 피아노의 간주 사이 가수는 목소리의 색깔을 바꾸어 나가게 된다.

(Der Jüngling:)

Die Sonne sinkt, o könnt' ich mit ihr scheiden!
Mit ihrem letzten Strahl entfliehen!
Ach diese namenlosen Qualen meiden
Und weit in schön're Welten zieh'n.

O komme, Tod, und löse diese Bande!
Ich lächle dir, o Knochenmann,
Entführe mich leicht in geträumte Lande,
O komm' und rühre mich doch an.

(Der Tod:)

Es ruht sich kühl und sanft in meinem Armen,
Du rufst! Ich will mich deiner Qual erbarmen.

(젊은이:)

해가 기울네, 오, 함께 떠났으면!
마지막 빛 즐기와 함께 사라지네!
아, 이 이롭도 없는 고통을 벗어나
멀리,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갔으면.

오, 오라, 죽음아, 풀어다오 이 결박을!
나 미소 지어 주마, 오, 사신(死神)아,
날 데려가거라, 가볍게, 꿈꾸던 나라로,
오, 오라, 날 좀 붙들거라.

(죽음:)

쉬어지지, 서늘하고 부드럽게, 내 품 안에선,
네가 부르니! 나 너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마.

4. 명부(冥府)행 Fahrt zum Hades D 526 마이르호퍼 시, 1817년

슈베르트는 교육자인 부친의 영향 아래 엄격한 고전 교육을 받았다. 신화 속 영웅을 등장시킨 그의 가곡들은 그의 ‘서정적’ 영역과 대비되는 동적이고 서사적인 세계를 보여준다. 이 곡들은 공통적으로 운명의 준엄함, 삶의 덧없음, 영웅의 분투를 묘사하며 우리 앞에 또 다른 슈베르트상을 열어준다.

이 노래의 제목에 나오는 ‘명부’의 원어명은 그리스 신화에서 명부(冥府)의 신인 하데스다. 영원히 물을 길는 다니에, 연못에 갇혀 형벌을 받는 탄탈루스를 차례로 가사에 불러내면서 피아노의 시종일관 느릿한 셋잇단음표가 ‘망각의 강물’ 레테의 상징과 연결된다. 네 번째 연에 이르러 강력한 반발의 외침이 일어나지만, 이내 회의와 체념의 세계로 돌아가고 만다.

Der Nachen dröhnt, Cypressen flüstern
Horch, Geister reden schaurig drein;
Bald werd' ich am Gestad', dem düstern,
Weit von der schönen Erde seyn.

Da leuchten Sonne nicht, noch Sterne,
Da tönt kein Lied, da ist kein Freund.
Empfang die letzte Thräne, o Ferne!
Die dieses müde Auge weint.

Schon schau ich die blassen Danaiden,
Den fluchbeladnen Tantalus;
Es murmelt todesschwangern Frieden,
Vergessenheit, dein alter Fluß.

Vergessen nenn' ich zwiefach Sterben,
Was ich mit höchster Kraft gewann,
Verlieren - wieder es erwerben -
Wann enden diese Qualen? wann?

나룻배 삐걱이고, 사이프러스 수련거린다
들으라, 유령들의 소름 끼치는 말소리
곧 나 저 언덕에 닿으리, 저 음산한 언덕,
아득히, 아름다운 대지로부터 떨어진 곳.

거긴 빛나지 않아, 태양도, 별도.
거긴 노랫소리도 없어, 거긴 친구도 없어.
받아다오, 마지막 눈물을, 오 먼 곳이어!
이 지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벌써 보이네, 창백한 다나에들,
무거운 저주 받은 탄탈루스,
쫄쫄 흐른다, 죽음을 잉태한 평화,
망각이어, 네 해묵은 강물이.

잊는 건, 두 배의 죽음
내가 온 힘 쏟아 얻은 것
잃네 - 잃은 걸 다시 구하네 -
언제, 이 고통이 끝날까? 언제?

5. 보물 캐는 사람의 욕망 Schatzgräbers Begehrt D 761 쇼베시, 1822년

꽃꽂하면서 리드미컬한 4분의 4박자 템포가 시종일관 유지되지만 중간에 희미가 꺾이면서 분위기는 한결 의기소침 하면서 온화한 쪽으로 변화한다. 꽃꽂이하게 자신의 목적을 향해 나가던 사내는 안식을 구하는 쪽으로 선화하는 것이다. 양손 모두 낮은음자리표로 유지하는 반주부가 곡의 남성성과 적은 구원예의 가능성, 빛이 적은 세계를 암시한다. 작사자 쇼베는 오페라 '알폰소와 에스트렐라' 대본작가로 슈베르트와 긴밀히 협력한 인물이다.

In tiefster Erde ruht ein alt Gesetz,
Dem treibt mich's, rastlos immer nachzuspüren;
Und grabend kann ich Andres nichts vollführen,
Wohl spannt auch mir die Welt ihr goldnes Netz,

Wohl tönt auch mir der Klugheit seicht Geschwätz:
"Du wirst die Müh und Zeit umsonst verlieren."
Das soll mich nicht in meiner Arbeit irren,
Ich grabe glühend fort, so nun, wie stets.

Und soll mich nie des Findens Wonne laben,
Sollt ich mein Grab mit dieser Hoffnung graben:
Ich steige gern hinab, gestillt ist dann mein Sehnen.

Drum lasset Ruhe mir in meinem Streben!
Ein Grab mag man wohl jedem gerne geben,
Wollt ihr es denn nicht mir, ihr Lieben, gönnen?

깊고 깊은 땅 속에 묻혀있네, 옛 법(法) 하나
그걸 찾아 내 마음, 쉼 없이, 달려만 가네
하여 파면서 나, 다른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아마 내게도 세상이 펼쳐주리, 그 황금 그물을.

내게도 울려오겠지, 지혜의 잔소리.
"넌 수고며 시간을 헛되이 잃을 게야"
그런 말이 일하는 날 헤매게 하라
난 열 내어 파고 팔뿐, 이렇게 지금, 또 언제나.

설령 발견의 기쁨이 네게 원기 주지 않아도,
나는 내 무덤을 이 희망으로 파야 하리.
기꺼이 내려가겠네, 그치리 그댄, 나의 그리움도.

그러니 놔두시라, 나를 나의 지향(志向) 가운데!
무덤이야 누구에게든 기꺼이 주지 않나.
나에게도, 사랑하는 이들이여, 주지 않으려가?

6. 인간의 한계 Grenzen der Menschheit D 716 괴테 시, 1821년

괴테와 슈베르트 모두 신에 대한 인간의 도전을 나타내는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소재에 심취했다. 그러나 이 노래에서는 반대로 신에 대한 인간의 겸허를 강조한다. 괴테는 ‘나는 아주 큰 존재여서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자신 내부에 ‘양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슈베르트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슈베르트는 가곡에서 장조와 단조를 오가는 미묘하면서도 불안한 분위기의 변화를 즐겼으며, 앞의 노래 ‘우수’에서 이런 효과가 편함과 괴로움의 대비를 강조하듯이 이 노래에서는 신의 절대성과 인간의 한계를 묘사한다. 후반부에 노래 첫 부분의 분위기가 돌아오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엄숙성을 강조한다.

Wenn der uralte,	태고부터 계신
Heilige Vater	신성한 아버지께서
Mit gelassener Hand	침착한 손으로
Aus rollenden Wolken	소용돌이치는 구름에서
Segnende Blitze	축복의 번개를
Über die Erde sä't,	땅 위로 뿌린다면
Küß' ich den letzten	나는 입맞추리라
Saum seines Kleides,	그 옷자락 끝에다
Kindliche Schauer	어린이 같은 두려움을
Tief in der Brust.	깊이 가슴에 품고.
Denn mit Göttern	신들과는
Soll sich nicht messen	우열을 겨루어서는 안 되기에,
Irgend ein Mensch.	그 어떤 인간도.
Hebt er sich aufwärts,	인간이 위로 치솟아
Und berührt	정수리가 별들에
Mit dem Scheitel die Sterne,	가 닿으면
Nirgends haften dann	그 어디에도 없으리.
Die unsichern Sohlen,	그 불안한 발 붙일 곳.
Und mit ihm spielen	하여 노리개가 되리,
Wolken und Winde.	구름과 바람의.
Steht er mit festen,	그가 굳은
Markigen Knochen	단단한 뼈로써
Auf der wohlgegründeten,	터 잘 닦인
Dauernden Erde;	영속하는 땅 위에 서도,
Reicht er nicht auf,	인간은 크지 못 한다네
Nur mit der Eiche	한갓 떡갈나무나
Oder der Rebe	포도 넝쿨과
Sich zu vergleichen.	견줄 만큼도.
Was unterscheidet	무엇이 구분하는가
Götter von Menschen?	신들과 인간을?
Daß viele Wellen	많은 물결이 흘러

Vor jenen wandeln,
Ein ewiger Strom:
Uns hebt die Welle,
Verschlingt die Welle,
Und wir versinken.

Ein kleiner Ring
Begränzt unser Leben,
Und viele Geschlechter
Reihen sich dauernd
An ihres Daseyns
Unendliche Kette.

신들 앞에서는
영원한 강물을 이루지만
우리는, 파도가 들고
파도가 집어삼켜
우린, 가라앉고 말아.

작은 고리 하나
우리의 삶을 한계 지으니
여러 세대가
오래 두고 연이어 지네,
그들 현존의
무한한 사슬에서.

7. 향수 Das Heimweh D 851 쾨르커 시, 1825년

슈베르트는 이 노래를 네 개의 부분으로 나누며, 각각의 시상에 상응하여 음악적으로 구분한다. 음울하게 시작되는 첫 부분은 마지막 부분과 정서적 및 조성적으로 긴밀하게 연관된다. 두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은 훨씬 묘사적이다. 고향집의 정겨운 모습을 나타내는 두 번째 연이 정감을 불러일으키는 음형을 동반하며 점차 고조되고, 세 번째 연은 알프스의 정경과 지역 민요를 묘사하는 한층 리드미컬한 음형을 동반하며 오른손이 소박한 렌틀러 춤곡을 묘사한다. 네 번째 연에서 시의 화자는 음울한 현실로 돌아온다. 이런 구조로 인해 마치 교향곡의 네 개 악장을 연상시키는 정교한 구조를 갖는다. 슈베르트의 탁월한 스토리텔링 기교가 드러난다.

Ach! der Gebirgssohn hängt mit kindlicher Lieb' an der Heimath;
Und wie den Alpen geraubt hinwelket die Blume, so welkt er
Ihr entrissen dahin! - Stets sieht er die trauliche Hütte,
Die ihn gebar, im hellen Grün umduftender Matten;
Sieht das dunkle Föhrengehölz, die ragende Felswand
Über ihm, und noch Berg' auf Berg' in erschütternder Hoheit
Aufgethürmt, und glühend im Rosenschimmer des Abends.
Immer schwebt es ihm vor, verdunkelt ist alles um ihn her.

Ängstlich horcht er; ihm deucht: er höre das Muhen der Kühe
Vom nahen Gehölz, und hoch von den Alpen herunter
Glöcklein klingen; ihm deucht: er höre das Rufen der Hirten,
Oder ein Lied der Sennerin, die mit umschlagender Stimme,
Freudig zum Wiederhall aufjauchzt Melodien des Alplands.
Immer tönt es ihm nach;
Ihn fesselt der lachenden Ebenen Anmuth nicht;
Er flichet der Städt' einengende Mauern
Einsam, und schaut aufweinend vom Hügel die heimischen Berge;
Ach! Es zieht ihn dahin mit unwiderstehlicher Sehnsucht!

아! 산(山)의 아들이 매달려 있네, 아이 사랑으로 고향에
알프스에서 빼내 오면, 꽃이 시들 듯 그가 시드네.
이젠 떠나 버렸건만! - 언제나 보이네, 정든 오두막.
그를 낳아준 곳, 향기 감도는 초원 연초록 속에 선 집
질은 소나무 숲, 치솟은 암벽
머리 위에, 또 첩첩 산들, 쏟아지는 높이에
쏟아있고, 이글거리며, 저녁의 장미빛 광채.
늘 눈앞에 떠도는데, 어두워졌네, 그의 주위는 모두.

두려워져 그는 귀 기울이네, 들려오는 것만 같아, 소 울음소리
가까운 숲에서, 높은 알프스로부터
종소리 울려온다, 들리는 것만 같아, 목동의 외침소리.
혹은 소꿉 짜는 아가씨의 노래, 요들 송.
기쁘게, 알프스의 멜로디에 화답하며 환호하네.
늘 그 여운이 들려와
그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네, 웃음 띤 평원의 우아함은.
그는 도망치네, 도시의 갑갑한 성벽으로부터,
외롭게 언덕에서, 울음 터뜨리며 고향의 산(山)들을 바라보네.
아! 그곳으로 이끌려가네, 기억할 수 없는 그리움으로.

8. 하프 악사(樂士)의 노래 **Drei Harfner-Lieder** 피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에 의한, 1816년

이 세 노래는 피테의 장편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 들어있는 늙은 하프 연주자의 노래 3개에 곡을 붙인 것이다. 이 노래들에는 슈만이나 볼프를 비롯한 수많은 작곡가들이 선율을 부여한 바 있다.

작품 속의 하프연주자는 귀족으로 태어났지만 불운으로 엮인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비탄 속에 떠돌아다니는 인물이다. 피테는 이 인물에 인간 존재의 원천적인 비극성을 불어넣었으며, 작곡가는 허식 없는 선율로 이에 상응하는 표현을 창조했다.

첫 두곡은 하프의 글리산도를 묘사한 전주에 이어 흐르는 분산화음을 동반한 주선율이 등장한다. 주인공 빌헬름이 처음 골방에서 괴롭게 생활하는 이 노인을 찾았을 때 그가 자신의 처지를 괴로워하며 부르고 있던 노래가 이번 공연에서는 두 번째로 불려지는 '눈물 젖은...'이다. 슈베르트는 이 곡이 작곡된 해와 6년 뒤 같은 가사에 다른 선율을 붙였지만 오늘날에는 잘 연주되지 않는다. 원작소설에서 그 뒤에 등장하는 '외로움에...'에선 노인의 심리가 한층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문으로 살금살금 다가가'는 빠른 4박자의 한층 단순한 표현으로 진행되는 짧은 노래다. 여기서 늙은 하프 연주자는 정자에 앉아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묘사되며 빌헬름은 그 노래를 가만히 경청한다.

Wer sich der Einsamkeit ergiebt (Harfenspieler I)

Wer sich der Einsamkeit ergiebt,
Ach! der ist bald allein;
Ein jeder lebt, ein jeder liebt
Und läßt ihn seiner Pein.
Ja! Laßt mich meiner Qual!
Und kann ich nur einmal
Recht einsam sein,
Dann bin ich nicht allein.

Es schleicht ein Liebender lauschend sacht,
Ob seine Freundin allein?
So überschleicht bei Tag und Nacht
Mich Einsamen die Pein,
Mich Einsamen die Qual.
Ach, werd ich erst einmal
Einsam im Grabe sein,
Da läßt sie mich allein!

Wer nie sein Brot mit Tränen aß (Harfenspieler III)

Wer nie sein Brot mit Tränen aß,
Wer nie die kummervollen Nächte
Auf seinem Bette weinend saß,
Der kennt euch nicht, ihr himmlischen Mächte.
Ihr führt ins Leben uns hinein,
Ihr laßt den Armen schuldig werden,

외로움에 몸 맡긴 이 (하프 악사의 노래 I)

외로움에 몸 맡긴 이
아, 그이, 곧 혼자라네.
누구든 살고, 누구든 사랑하고
그는 그의 괴로움에 맡겨두지.
그래! 나는 내 괴로움에 맡겨두라!
나 언젠가
정말로 외로워지리니
그땐 내가 혼자가 아니리.

사랑하는 이가 살금살금, 귀 세우고,
그의 애인이 혼자인가? 살며시 살피듯
그렇게 살금살금 낮이고 밤이고 닥치네
나 외로운 이를 고뇌가
나 외로운 이를 고통이
아, 내가 언젠가
외롭게 무덤 속에 있으면
그땐 고뇌도 고통도 날 버려두리!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이 (하프 악사의 노래 III)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이
근심에 찬 여러 밤을
울며 지새워 보지 않은 이
그대들을 모른다, 그대들 천상의 힘들이여.
그대들을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대들은 가엾은 사람을 죄짓게 하고

Dann überlaßt ihr ihn der Pein:
Denn alle Schuld rächt sich auf Erden.

그리고는 내맡겨둔다, 고뇌에다.
모든 죄는 지상에서 그 값을 치르기에.

An die Türen will ich schleichen (Harfenspieler II)

문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하프 악사의 노래 II)

An die Türen will ich schleichen,
Still und sittsam will ich stehn,
Fromme Hand wird Nahrung reichen,
Und ich werde weitergehn.
Jeder wird sich glücklich scheinen,
Wenn mein Bild vor ihm erscheint,
Eine Träne wird er weinen,
Und ich weiß nicht, was er weint.

문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잠잠히 암전하게 서 있으려네.
경건한 손이 양식을 내밀어주리,
그리고 나는 떠나가리.
누구든 자기는 행복해 보이리,
내 모습이 그 앞에 나타나면.
눈물 한 방울 흘려주리
그가 왜 우는진 내가 몰라도

9. 순례의 노랫가락 Pilgerweise D 789 쇼베 시, 1823년

이 쓸쓸한 노래는 작곡가로 살기로 결심한 이후 슈베르트 자신의 상황과 상응한다. 그는 친구들의 호의에 기대 살았고, 불안정한 삶이었지만 청중의 만족에서 위안을 찾았다.

외로운 순례를 나타내는 첫부분 반주부는 물결의 흔들림처럼 느껴진다. 중반부에서는 한층 흐르는 느낌이 강화되면서 불안 또한 짙어진다. 마지막 연에서 차츰 진정되고, 첫 연으로 돌아가 평화롭게 끝난다. 작곡가는 자신의 처지에서 결국 위안을 찾았던 것이다.

Ich bin ein Waller auf der Erde
Und gehe still von Haus zu Haus,
O reicht mit freundlicher Geberde
Der Liebe Gaben mir heraus!

나는 지상의 방랑자
조용히 집집을 전전한다오,
오 건네주오, 다정한 몸짓으로
사랑의 선물을 내주오!

Mit offenen theilnahmsvollen Blicken,
Mit einem warmen Händedruck
Könnt ihr dieß arme Herz erquicken,
Und es befrei'n von langem Druck.

관심에 찬, 열린 눈길로
따뜻한 한 번의 악수로
이 가엾은 가슴을 북돋우고
풀어줄 수 있다오, 긴 압박에서.

Doch rechnet nicht, daß ich euch's lohnen,
Mit Gegendienst vergelten soll;
Ich streue nur mit Blumenkronen,
Mit blauen, eure Schwelle voll;

하지만 계산하진 마오, 내가 보답할거라고
봉사로 갚아줄 거라고는.
나는 꽃관을 흠뻑릴 뿐,
푸른 꽃관을, 그대들 문지방에다 가득히.

Und geb ein Lied euch noch zur Zither,
Mit Fleiß gesungen und gespielt,
Das euch vielleicht nur leichter Flitter,
Ein leicht entbehrlich Gut euch gilt -

노래도 하나, 그대들 현금에 맞추어 주지
부지런히 부르고 연주된 노래
그대들에게야 그저 가벼운 치장,
없어도 괜찮을 것일테지 -

Mir gilt es viel, ich kann's nicht missen,

내게는 중요하다오, 없으면 안 된다오

Und allen Pilgern ist es werth;
Doch freilich ihr - ihr könnt nicht wissen,
Was den beseligt, der entbehrt.

Vom Ueberfluß seydet ihr erfreuet,
Und findet tausendfach Ersatz;
Ein Tag dem andern angereihet
Vergrößert euren Liebesschatz.

Doch mir - so wie ich weiter strebe
An meinem harten Wanderstabe,
Reißt in des Glückes Lustgewebe
Ein Faden nach dem andern ab.

Drum kann ich nur von Gaben leben,
Von Augenblick zu Augenblick,
O wollet vorwurfslos sie geben,
Zu eurer Lust - zu meinem Glück.

Ich bin ein Waller auf der Erde
Und gehe still von Haus zu Haus,
O reicht mit freundlicher Geberde
Der Liebe Gaben mir heraus!

모든 순례자에게 소중하다오
하지만 물론 그대들 - 그대들은 알 수 없지,
가진 게 없는 이가 무슨 축복을 받는지.

넘침을 그대들은 기뻐하고
수천 배 대용품도 찾아내지.
하루가 또 하루에 연이어져
그대들의 사랑의 보물을 키우는데.

하지만 내게서는 - 딱딱한 지팡이에
의지하여 가고 또 가노라면,
끊겨나간다고, 행복의 흥겨운 직조가
한 올 또 한 올.

그러니 선물로만 살아갈 수 있다고
한 순간 한 순간
오, 비난 없이 주오,
그대들 즐겁게 - 나 행복하게.

나는 지상의 방랑자
조용히 집집을 전전한다오,
오 건네주오, 다정한 몸짓으로
사랑의 선물을 내주오!

10. 어부의 사랑의 행복 Des Fischers Liebesglück D 933 라이트너 시, 1827년

반주부를 통해 잔잔한 물결과 배의 흔들림을 표현하는 것은 슈베르트의 천성에 지극히 걸맞는 일이었지만 이 노래에서 부유하는 느낌과 찰나의 감각은 오히려 억제되어 있다. 가사가 나타내는 열락과 환희에도 불구하고 단음계로 전개되는 곡상도 애수의 감정을 자아내며, 유절(有節)가곡이므로 각 연 사이의 곡상 변화도 억제된다. 이 때문에 연인과의 만남이 현실인지, 과거에 대한 덧없는 회상인지, 실현될 수 없었던 일에 대한 환상인지 듣는 이는 의심을 품게 된다.

Dort blinket Durch Weiden,
Und winket Ein Schimmer
Blaßstrahlig Vom Zimmer
Der Holden mir zu.

Es gaukelt Wie Irrlicht,
Und schaukelt Sich leise
Sein Abglanz Im Kreise
Des schwankenden See's.

Ich schaue Mit Sehnen

저기 빛난다 버들가지 사이로
손짓한다 한 가닥 빛
희미하게, 아름다운 이의
방으로부터 내게로 비쳐오며

어른거린다, 도깨비불처럼
흔들린다 나직하게
그 비추인 빛이, 동그란,
흔들리는 호수 속에서.

나는 그리움으로

In's Blaue Der Wellen,
Und grüße Den hellen,
Gespiegelten Strahl.

Und springe Zum Ruder,
Und schwinge Den Nachen
Dahin auf Dem flachen,
Krystallinen Weg.

Fein-Liebchen Schleicht traulich
Vom Stübchen Herunter,
Und spudet Sich munter
Zu mir in das Boot.

Gelinde Dann treiben
Die Winde Uns wieder
See-einwärts Vom Flieder
Des Ufers hindann.

Die blassen Nachtnebel
Umfassen Mit Hüllen
Vor Spähern Den stillen,
Unschuldigen Scherz.

Und tauschen Wir Küsse,
So rauschen Die Wellen
Im Sinken Und Schwellen,
Den Horchern zum Trotz.

Nur Sterne Belauschen
Uns ferne, Und baden
Tief unter Den Pfaden
Des gleitenden Kahn's.

So schweben Wir selig,
Umgeben Vom Dunkel,
Hoch überm Gefunkel
Der Sterne einher.

Und weinen Und lächeln,
Und meinen, Enthoben
Der Erde, Schon oben,
Schon drüben zu seyn.

파도의 푸르름을 보며
인사한다, 환한,
비춰진 빛 줄기에.

홀쩍 노를 향해 뛰어
휘익 나룻배를
띄운다, 매끄러운
수정(水晶) 물길에.

고운 사랑이 살금살금
방을 살짝 나와, 내려와,
후딱 온다, 명랑하게
내게로, 배 안으로.

살살 몰아간다,
바람이 우리를 다시
호수 안쪽으로, 물가 언덕의
라일락에서부터.

열은 밤 안개가
너울로 가려 준다
옛보는 자들로부터. 이 조용한
티없이 맑은 즐거움을.

우리가 입맞춤을 나누면
파도가 수련거린다
가라앉으며 솟으며
옛듣는 자들에 맞서.

오직 별들만 우리를
멀리서 옛듣다가, 잠겨온다
깊이, 물길 아래로,
미끄러지는 나룻배 아래로.

그렇게 우린 둥둥 떠가네, 희열에 차,
어둠에 감싸여
높이, 별빛의
섬광 위에서 함께

울고 울고 웃고 웃으며
우린 생각한다, 지상을
떠나, 벌써 높은 곳에,
벌써 피안에 가있다고.

11. 겨울 저녁 Der Winterabend D 938 라이트너 시, 1828년

세상의 혼란을 피해 안온한 평온을 구하는 것은 슈베르트 작품에서 자주 반복되는 주제다. 4분음표로 반복되는 왼손 음형과 4분음표 부점의 특징적인 보컬 리듬형이 반복되면서 이 노래에서도 화자는 거친 세상에서의 느긋하고 평온한 도피를 행한다. 그러나 저녁의 평화가 분명해지면서 화자는 또 다른 시공간과 참다운 평화를 동경하게 되고, 곡상은 미묘하게 변화한다. 영원한 정착이란 불가능한 인간의 운명을 상징하는 것 같다.

Es ist so still, so heimlich um mich,
Die Sonn' ist unter, der Tag entwich.
Wie schnell nun heran der Abend graut!
Mir ist es recht, sonst ist mir's zu laut.
Jetzt aber ist's ruhig, es hämmert kein Schmied,
Kein Klempner, das Volk verlieft, und ist müd;
Und selbst, daß nicht raßle der Wagen Lauf,
Zog Decken der Schnee durch die Gassen auf.

Wie thut mir so wohl der selige Frieden!
Da sitz' ich im Dunkel, ganz abgeschieden,
So ganz für mich; - nur der Mondenschein
Kommt leise zu mir in's Gemach.
Er kennt mich schon, und läßt mich schweigen,
Nimmt nur seine Arbeit, die Spindel, das Gold,
Und spinnet stille, webt und lächelt still,
Und hängt dann sein schimmerndes Schleyertuch
Ringsum an Geräth und Wänden aus.
Ist gar ein stiller, ein lieber Besuch,
Macht mir gar keine Unruh' im Haus'.
Will er bleiben, so hat er Ort,
Freut's ihn nimmer, so geht er fort.

Ich sitze dann stumm im Fenster gern,
Und schaue hinauf in Gewölk' und Stern.
Denke zurück, ach! weit, gar weit,
In eine schöne, verschwund'ne Zeit.
Denk' an Sie, an das Glück der Minne,
Seufze still', und sinne und sinne.

참 고요하네, 참 아늑하네 주위가
해는 졌고, 낮은 물러섰고.
얼마나 빨리 저녁은 어두워 오는지!
이게 나는 좋아, 어느 땐 너무 시끄럽지.
하지만 지금은 고요해, 대장장이 망치질 멈추고
합석장이라도 멈추고, 사람들 흩어졌어, 피곤하지.
마차 털썩털썩 내달리지 않아도
골목길들에 눈[雪]이 불이 피어지.

얼마나 편안한지, 축복받은 평화!
여기 나 어둠 속에 앉아, 완전히 떠나
이렇게 오로지 홀로 - 달빛만
나직이 내게로, 내 방으로 온다.
달빛은 나를 이미 잘 알아, 나를 침묵하게 두고
제 일만 한다, 황금 실을
조용히 잣는다, 짜며, 가만히 미소 지으며
그 은은한 베일을 드리워준다
온 사방 집기에는, 벽에다.
참 조용하구나, 이 사랑스런 방문객,
내 집에 어떤 소란도 일으키지 않네.
머물겠다면, 자리는 있는데
그걸 기뻐하지 않고, 가버리네.

그럼 난 말없이 창가에 앉아
구름이며 별을 쳐다보네
돌아보네, 아! 아득히, 참 아득히,
사라져버린 아름다웠던 시간을.
생각하네, 당신을, 존경과 사랑의 행복을,
한숨 짓네, 고요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네.

12. 저녁별 Abendstern D 806 마이르호퍼 시, 1824년

슈베르트는 베토벤의 교향곡 7번에서 A단조로 진행되는 2악장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으며, 이 노래의 화음 진행에서도 같은 영향이 관찰된다. 아울러 단조와 장조 사이를 미묘하게 오가는 선율선도 전형적인 슈베르트다. 저녁별은 지고의 선을 상징하지만 지상의 존재에게 영향을 미치기에는 먼 존재이므로 체험의 대상이기도 하다. 앞의 '명부행' 작사

자이기도 한 마이르호퍼는 슈베르트와 한 방을 쓰기도 한 절친한 사이였고, 그의 가사를 사용한 가곡에서는 늘 깊은 공감감이 묻어났다.

Was weilst du einsam an dem Himmel,
O schöner Stern? und bist so mild;
Warum entfernt das funkelnde Gewimmel
Der Brüder sich von deinem Bild?
"Ich bin der Liebe treuer Stern,
Sie halten sich von Liebe fern."
So solltest du zu ihnen gehen,
Bist du der Liebe, zaudre nicht!
Wer möchte denn dir widerstehen?
Du süßes eigensinnig Licht.
"Ich säe, schaue keinen Keim,
Und bleibe trauernd still daheim."

왜 너는 외롭게 하늘에 머무는가,
오 아름다운 별아? 너 그리 온화한데
왜 멀어지는가, 섬광을 뿜는 형제들의
우리가 네 모습으로부터?
"나는 사랑의 변함없는 별
저들은 사랑에 거리를 두는 거라고."
그럼 네가 그들에게로 가야지,
넌 사랑이잖아, 망설이지마!
누가 네게 맞서랴?
너 감미로운 고집스런 빛아.
"난 씨 뿌릴 뿐, 싹을 보진 못하죠,
슬퍼하며 잠잠히 집에 머문답니다."

13. 여름밤 Die Sommernacht D 289 클롭슈톡 시, 1815년

길이는 짧지만 '방랑자'와 마찬가지로 레치타티보와 이어지는 아리아를 연상시키는 오페라의 한 장면 같은 곡이다. '여름밤'이라는 배경에서 호젓하고 안온한 산보를 연상하기 쉽지만, 시인이 사랑했던 대상의 죽음을 탄식한다는 반전이 마련되어 극적인 효과가 강해진다. 오래 전의 회상이 갖는 강렬한 감정은 달빛이라는 상징의 안온함을 통해 억제된다.

Wenn der Schimmer von dem Monde nun herab
Auf die Wälder sich ergießt, und Gerüche
Mit den Düften von der Linde
In den Kühlungen wehn;

은은한 달빛이 이제 내려
숲에 부어지면, 온갖 냄새가
보리수 향기와 함께
서늘하게 불어오면

So umschatten mich Gedanken an das Grab
Meiner Geliebten, und ich seh' im Walde
Nur es dämmern, und es weht mir
Von der Blüthe nicht her.

내게 그늘 드리우지, 생각이, 사랑했던 이들의
무덤 생각, 하여 보이는 건 숲 속이
어슴푸레해지는 것뿐, 바람도
꽃들에게서 불어오지 않네.

Ich genoß einst, o ihr Todten, es mit euch!
Wie umwehten uns der Duft und die Kühlung,
Wie verschönt warst von dem Monde,
Du, o schöne Natur!

언젠가 즐겼지, 오 죽은 이들이여, 너희와 더불어!
우리를 감돌았었지, 향기와 서늘함.
달빛으로 넌 얼마나 아름다워졌던가,
너, 오 아름다운 자연이여!

14. 사랑스러운 별 Der liebliche Stern D 861 슐체 시, 1825년

별을 노래한 1년 전의 '저녁별'과 달리 이 '사랑스럽고' '작은' 별의 노래는 고개를 까닥이는 듯한 경묘한 리듬을 통해

제목 그대로의 느낌을 강화한다. 한편으로 가사를 살펴보면 이 리듬 속에 슈베르트의 ‘별’ 계열 노래들과 ‘달’ 계열 노래들이 하나로 묶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理想)의 세계를 전해주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너무나 먼 존재로서의 별을 노래하는 점에서도 ‘저녁별’과의 연관성이 감지된다.

Ihr Sternlein, still in der Höhe,
Ihr Sternlein, spielend im Meer,
Wenn ich von ferne daher
So freundlich euch leuchten sehe,
So wird mir von Wohl und Wehe
Der Busen so bang und so schwer.
Es zittert von Frühlingswinden
Der Himmel im flüssigen Grün;
Manch Sternlein sah ich entblühen,
Manch Sternlein sah ich entschwinden;
Doch kann ich das schönste nicht finden,
Das früher dem Liebenden schien.

Nicht kann ich zum Himmel mich schwingen,
Zu suchen den freundlichen Stern;
Stets hält ihn die Wolke mir fern!
Tief unten da möcht' es gelingen,
Das friedliche Ziel zu erringen!
Tief unten da ruht' ich so gern!

Was wiegt ihr im laulichen Spiele,
Ihr Lüftchen, den wogenden Kahn?
O treibt ihn auf rauhere Bahn
Hernieder in's Wogengewühle!
Laßt tief in der wallenden Kühle
Dem lieblichen Sterne mich nahn!

너희 작은 별들, 높은 곳에서 고요하고,
너희 작은 별들, 바닷물에 어른거리고.
멀리서부터 너희
그리 다정히 빛나는 걸 보면
그럼 나는 평안과 괴로움으로
가슴이 떨리지, 참 무겁지.
봄바람에 떨리고 있네,
하늘이, 강물 같은 초록 속에서
많은 작은 별들은 지는 게 보였고,
많은 작은 별들은 사라지는 게 보였고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별은 찾질 못하겠네,
예전에 사랑하는 이에게 빛나주었던 그 별.

내가 하늘로 휘익 뛰어 오를 순 없지,
그 다정한 별을 찾겠다고.
늘 구름이 그 별을 내게서 멀리 두어!
이 깊고 낮은 곳에서 이루어질까,
평화로운 목적을 얻는 것!
이 깊고 낮은 곳에서 난 쉬고만 싶은데!

왜 저울질 하는가, 온화하게 유희하며,
너희 공기여, 출렁이는 나룻배를?
오 배를 좀 더 거친 물길 위로 몰아라.
이 낮은 곳 물결 소용돌이 속으로!
깊이 물결치는 서늘함 속에서
사랑스런 별 가까이 가게 하라!

가사 번역 | 전영애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명예교수)
곡목 해설 | 유윤종 (동아일보 문화전문기자)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

Matthias GOERNE
Baritone

마티아스 괴르네는 이 시대 가장 다재다능한 성악가이자 전 세계적으로 추앙받는 예술가이다. 그는 명망 있는 페스티벌과 공연장 무대에 자주 초청받고 있으며, 유명 오케스트라와 지휘자, 피아니스트들과 꾸준히 협업해 오고 있다. 독일 바이마르 출신의 마티아스 괴르네는 한스 요아힘 바이에르와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 그리고 피셔 디스카우를 사사했다.

마티아스 괴르네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런던 코벤트 가든 로열 오페라 하우스, 마드리드 왕립 극장, 파리 국립 오페라, 빈 국립 오페라와 같은 세계 주요 오페라 무대에서 왔다. 그가 노래한 주요 배역은 볼프람 (오페라 ‘탄호이저’), 암포르타스 (오페라 ‘파르지팔’), 보탄 (오페라 ‘발퀴레’), 오레스트 (오페라 ‘엘렉트라’), 요한 (오페라 ‘살로메’)에서 바르톡 ‘푸른 수염 영주의 성’과 베르크 ‘보체크’의 주연까지 매우 다양하다.

괴르네의 뛰어난 예술성은 그가 녹음한 수많은 음반들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 중 다수의 음반이 권위있는 음반상을 수상하였는데, 그래미상 후보에 4번이나 오른 것을 비롯해 ICMA상 (국제 클래식 음악상), 그라모폰상, 2017 BBC 뮤직 매거진 보컬상, 황금 디아파종상 등이 그 예이다.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 및 알프레드 브렌델과 유니버설 뮤직을 통해 전설적인 음반을 남긴 이후 괴르네는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들과 함께 <괴르네 슈베르트 에디션>이라는 12장의 슈베르트 음반을 아르모니아 문디를 통해 발매했다. 가장 최근 음반으로는 크리스토프 에센바흐가 반주를 맡은 브람스 성악곡, 마르쿠스 힌터호이저가 반주한 슈만 성악곡,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말러 성악곡 음반이 있으며, 특히 스웨덴 라디오 오케스트라와 녹음한 바그너 아리아 음반은 평단의 극찬과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마티아스 괴르네는 2018/19 시즌 뉴욕 필하모닉 상주 예술가로 활동하였다. 그 밖의 2018/19 시즌 하이라이트로 는 피츠버그 심포니, 휴스턴 심포니, LA 필하모닉과 같은 미국 톱 오케스트라와의 미국, 유럽, 일본 공연이 있으며, 파리 국립 오페라에서는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쿠르베날 역으로 무대에 오르기도 하였다. 피아니스트 다닐 트리노프, 레이프 오베 안스네스, 안토니오 파파노 등과 함께 베를린 필하모니 홀, 파리 필하모니 홀, 런던 위그모어 홀,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음악당 등 유럽 주요 공연장에서 선보였던 리사이틀도 빼놓을 수 없는 하이라이트 중 하나이다. 마티아스 괴르네는 라비니아, 잘츠부르크, 베르비에와 같은 여름 페스티벌에 출연하였으며, 특히 2019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는 프란츠 빌저 뫼스트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과 협연하였다.



Matthias Goerne is one of the most versatile and internationally sought-after vocalists and a frequent guest at renowned festivals and concert halls. He has collaborated with the world's leading orchestras, conductors and pianists. Born in Weimar, he studied with Hans-Joachim Beyer in Leipzig, and later with Elisabeth Schwarzkopf and Dietrich Fischer-Dieskau.

Matthias Goerne has appeared on the world's principal opera stages including the Metropolitan Opera in New York, Royal Opera House Covent Garden, Teatro Real in Madrid, Paris National Opera, and the Vienna State Opera. His roles range from Wolfram, Amfortas, Wotan, Orest, and Jochanaan to the title roles in Béla Bartók's *Duke Bluebeard's Castle* and Alban Berg's *Wozzeck*.

Goerne's artistry has been documented on numerous recordings, many of which have received prestigious awards, including four Grammy nominations, an ICMA Award, a Gramophone Award, the BBC Music Magazine Vocal Award 2017, and a Diapason d'or arte. After his legendary recordings with Vladimir Ashkenazy and Alfred Brendel for Universal Music, he recorded a series of selected Schubert songs on 12 CDs for harmonia mundi (*The Goerne/Schubert Edition*) with eminent pianists. His latest recordings of Brahms songs with Christoph Eschenbach, of Schumann songs with Markus Hinterhäuser, of Mahler songs with the BBC Symphony, and of Wagner arias with the Swedish Radio Symphony have received rave reviews.

Matthias Goerne is Artist in Residence with the New York Philharmonic in the 2018/19 season. Further highlights of the 2018/19 season include concerts with other top orchestras in the U.S. (Pittsburgh, Houston, Los Angeles), Europe and Japan. Furthermore, Mr. Goerne appears as Kurwenal (*Tristan*) at the Paris National Opera. Song recitals with Daniil Trifonov, Leif Ove Andsnes and Sir Antonio Pappano will lead him to the Philharmonie in Berlin, Philharmonie de Paris, Wigmore Hall in London, Palau de la Música in Barcelona and other major European venues. Matthias Goerne will be guest at renowned summer festivals in Ravinia, Salzburg, and Verbier. At the Salzburg Festival 2019, he is going to appear with the Vienna Philharmonic under Franz Welser-Möst.

피아니스트

조성진

Seong-Jin CHO

Piano

압도적인 재능과 타고난 음악성을 겸비한 조성진은 빠르게 국제적인 수준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으며 같은 세대의 연주자들 중 단연 두각을 나타내는 아티스트 중 한명으로 평가받는다. 조성진은 2015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에 입상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조성진은 지난 2016년 1월, 도이치 그라모폰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지아난드레아 노세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과 쇼팽의 <4개의 발라드>를 연주한 도이치 그라모폰과의 첫 녹음은 2016년 11월에 발매되었다. 이후 2017년 12월에 드뷔시 독주곡을 담은 앨범이 발매되었으며 2018년에는 야닉 네제 세갱이 지휘하는 유럽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피아노 소나타와 <피아노 협주곡 20번 라단조>가 포함된 모차르트 작품집을 녹음하였고 11월 발매 하였다. 세 앨범은 모두 전 세계 평단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조성진은 카네기 홀, 암스테르담의 콘서트허바우, 베를린 필하모니 실내악홀, 비엔나 콘체르트하우스와 같은 세계 곳곳의 명망 높은 공연장들을 누리고 있다. 이후 두 시즌 동안 조성진은 프랑크푸르트의 알테 오페 메인 홀과 파리의 샹젤리제 극장, 함부르크 라이스할레, 뒤셀도르프 톤할레, 워싱턴 케네디 센터, 위그모어 홀, 베르비에 페스티벌에서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최근 공연과 앞으로 예정된 오케스트라 공연으로는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에드워드 가드너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얀 판 츠베덴이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로스 엔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한누 린투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이 있으며 사이먼 래틀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지휘하는 뮌헨 필하모닉, 정명훈이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츠크펠레 등도 예정되어 있다.

1994년 서울에서 태어난 조성진은 6세 때 피아노를 시작했으며 11세때 첫 공개 연주회를 가졌다. 2009년에는 일본 하마마츠에서 열린 하마마츠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대회 최연소로 우승했으며 2011년에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17세의 나이로 3위에 입상했다. 2012년에는 파리 국립 고등음악원으로 유학, 피아니스트 미셸 베로프와 함께 공부한 후 2015년 졸업하였다. 조성진은 현재 베를린에서 거주하고 있다.



With an overwhelming talent and innate musicality, Seong-Jin Cho is rapidly embarking on a world-class career and considered one of the most distinctive artists on the current music scene. Seong-Jin Cho was brought to the world's attention in 2015 when he won the First Prize at the Chopin International Competition.

Seong-Jin signed an exclusive contract with Deutsche Grammophon. The first recording was released in 2016 featuring Chopin's Piano Concerto No.1 with the London Symphony Orchestra and Gianandrea Noseda and the Four Ballades. A solo Debussy recital was then released in 2017, followed in 2018 by a Mozart album featuring sonatas and the D minor concerto with the Chamber Orchestra of Europe and Yannick-Nézet-Seguin. All albums won impressive critical acclaim worldwide.

An active recitalist, he performs in many of the world's most prestigious concert halls such as the Carnegie Hall, Amsterdam's Concertgebouw, Berlin Philharmonie Kammermusiksaal, Konzerthaus Vienna among many other venues.

During the next two seasons, he will play debut recitals in at venues including the main hall of Frankfurt's Alte Oper, Paris' Théâtre des Champs-Élysées, Laeiszhalle Hamburg, Tonhalle Düsseldorf, Washington's Kennedy Center, Wigmore Hall, Konzerthaus Vienna, and Verbier Festival.

Recent and upcoming orchestral appearances include the Gewandhaus Orchester with Antonio Pappano, London Philharmonic with Edward Gardner, New York Philharmonic with Jaap van Zweden, Los Angeles Philharmonic with Gustavo Dudamel, Boston Symphony Orchestra with Hannu Lintu, the London Symphony Orchestra with Simone Rattle, the Munich Philharmonic with Valery Gergiev, the Staatskapelle Dresden with Myung Whun Chung.

Born in 1994 in Seoul, Seong-Jin Cho started learning the piano at 6 and gave his first public recital at age 11. In 2009, he became the youngest-ever winner of Japan's Hamamatsu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In 2011, he won Third Prize at the Tchaikovsky Competition in Moscow at the age of 17. In 2012, he moved to Paris to study with Michel Béroff at the Paris Conservatoire National Supérieur de Musique from which he graduated in 2015. He is now based in Berlin.

마티아스 괴르네와 조성진의 슈베르트 가곡 리사이틀 ————— 24

CREEDIA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와의 인터뷰 ————— 26



PRESENT SONGS BY SCHUBERT

MATTHIAS GOERNE & SEONG-JIN CHO

CREDIA

마티아스 피르네와 조성진의 슈베르트 가곡 리사이틀

쇼팽 콩쿠르 우승, 도이치 그라모폰 전속 계약, 베를린 필하모닉 협연. 이런 기록들을 마치 운동선수의 그랜드슬램 달성 기록 정도로 보고 있다면 당신은 진정한 음악 팬이 아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자. 피아니스트는 홀로서기도 충분하지만 어떤 악기와도 협주가 가능한 만능 악기다. 세기의 명장이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아티스트로 일정 궤도에 오른 조성진은 이제 몸집을 키우고 있다. 체중이 아니라 연주 형태의 폭을 넓히는 것.

오는 9월 15일(경주예술의전당)과 18일(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일(통영국제음악당)에서 조성진은 세계적인 성악가 마티아스 피르네와 함께 슈베르트 가곡 리사이틀을 갖는다. 독일 가곡 최고 해석자로 꼽히는 피르네가 온다는 소식만으로도 충분한 뉴스인데, 함께하는 피아니스트가 조성진 이라니!

사실 피아니스트가 함께 연주하는 상대가 기악 연주자이냐, 성악가이냐에는 큰 차이가 있다. 악기끼리 합을 맞추는 일과 성악가, 다시 말해 ‘사람’의 호흡과 ‘가사’의 내용을 함께 읽어내야 하는 방식과는 또 다른 차원의 합이기 때문이다. 교향곡을 지휘할 때와 오페라를 지휘할 때, 지휘자의 역량과 스타일에 차이가 있듯이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피아니스트의 그것도 차이가 있다. 물론 함께하고픈 대상에 대한 ‘선호도’가 있겠지만 성악가의 호흡을 읽는 피아니스트의 영역은 좀 다른 차원의 것이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일화는 클럽발코니 87호(2018년 1월호)에 소개된 바 있다. 피르네를 좋아하던 조성진은 친구와 함께 파리에서 열리는 그의 리사이틀을 찾아가서 소개를 받았다. 그 자리에서 피르네는 이미 조성진의 존재를 잘 안다면서, 쇼팽 앨범을 들어봤다며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같이 연주하지 않겠냐며 연락처를 가져가더니 2주 후, “2019년에 빈, 파리, 런던에서 함께 연주할 수 있겠냐”는 제안을 한 것이다. 마침 시간이 가능했던 조성진은 그의 연주회에 동행했는데 프로그램은 볼프, 피츠너, R. 슈트라우스, 바그너 등 독일 후기 낭만 작품들이었다. R. 슈트라우스의 가곡은 물론이고 바그너의 ‘베젠돈크 가곡’은 오케스트라 반주가 어울리는 작품인데다 내용도 젊은 피아니스트에게 버겁지 않을까 싶었는데 정작 본인은 “공부가 많이 될 것 같다”며 준비 과정을 즐겼다.

2018년 4월 19일 빈 슈타츠오퍼, 이들의 공연을 찾은 음악 칼럼니스트 박철민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두 사람의 호흡이 대단히 훌륭했다고 전했다. 그때까지 조성진은 전형적인 반주자의 역할 보다는 솔리스트 느낌이 강했지만, 그날 프로그램에서는 피르네에게 맞추면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확연하게 드러낸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했다. 특히 섬세하게 표현해야 하는 음량의 스펙트럼도 넓었고, 조성진 특유의 프랑스적 시정이 예술 가곡, 시의 특성과 잘 어울렸다고 했다. 변태적일 정도의 섬세한 터치로 다양한 색채와 일렁임 가득한 운무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 극장 여기저기에서 탄성이 들렸다고 하니, 까다로운 빈 관객들도 조성진에게 매료된 모양이다. 현지 언론은 “너무나도 능수능란한 피아노에 풀 편성 오케스트라 반주에 대한 바람은 순식간에 사라졌으며, 피르네의 목소리와 피아노는 꼭 맞아떨어졌다”고 했다.

피르네는 알프레드 브렌델, 엘리자베스 레온스카야, 레이프 오베 안스네스, 크리스토프 에센 바흐 등 손꼽히는 최고의 피아노 거장들과 함께 무대에서 서 왔고 다닐 트리포노프와도 자주 무대에 섰다. 놀랍게도 빈, 파리, 런던 공연을 마친 후 피르네는 조성진과 함께 가곡 레퍼토리를 녹음했다. 도이치 그라모폰을 통해 발매될 예정인 앨범의 내용은 아직 공개 전이지만, 조성진에 대한 피르네의 음악적 신임이 얼마나 두터운지 엿볼 수 있다.

소식만 들어도 뿌듯하고 설레는 ‘그 무대’는 경주예술의전당(15일)과 예술의전당(18일), 통영 국제음악당(20일)에서 열린다.

공연 프로그램은 슈베르트를 선택했다. 과거 내한 무대에서 부르지 않았던 ‘방랑자’ ‘애수’ ‘젊은이와 죽음’ ‘명부(冥府) 행’ ‘보물 캐는 사람의 욕망’ ‘인간의 한계’ ‘향수’ ‘하프 악사(樂士)의 노래’ ‘순례의 노랫가락’ ‘어부의 사랑의 행복’ ‘겨울 저녁’ ‘저녁별’ ‘여름밤’ ‘사랑스러운 별’ 등이 선곡되었다.

글 | 이지영 (음악 칼럼니스트) / 클럽발코니 2019년 7월호 발췌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와의 인터뷰

Q. 조성진과 함께 공연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들과 함께 공연해 왔는데 조성진과의 합은 어떠한가요?

A. 조성진은 제 인생에서 발견한 가장 유니크하고 환상적인 연주자 중 하나입니다. 인간으로서도 그렇죠. 성진과 처음 만난 것은 2년 전쯤 전이었는데, 그가 파리에서 있었던 제 공연을 보러 왔고, 그때 제가 먼저 같이 공연을 해 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 이후로 멋진 관계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성진과 저의 합이요? 완벽하다고 할 수 있죠!

Q. 조성진과의 앨범이 DG에서 나올 예정인데 녹음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A. 즐거웠고 환상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 말 밖에 할 것이 없네요. 레코딩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적절히 감정을 나누면서 서로 마음을 열고 진행했습니다. 이틀 정도 리허설을 하고 녹음에 들어갔어요.

Q. 당신은 당대 가장 빼어난 피아니스트를 파트너로 선정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좋은 파트너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 반주자와는 비슷한 음악적 취향과 성향에 기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아니스트는 노래하는 사람 뒤에서 듣고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만의 고유의 해석으로 함께 연주해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솔로 피아니스트들과 작업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Q. 다른 작곡가에 비해 슈베르트에 좀 더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A. 인간과 인간성, 사람으로서 사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슈베르트는 말해 줍니다. 우리 존재와 이루지 못하는 열망 이런 것들에 대해 가장 독창적이고 천재적인 방식으로 그의 음악을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관객들도 그 점을 함께 느끼기를 바랍니다.

Q. 이번 레퍼토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슈베르트의 곡들을 소개해 주고 싶어서 이번 프로그램을 골랐습니다. 슈베르트는 500 곡 넘게 작곡했지만 사람들이 아는 건 50~60 곡 밖에 안 되는 것이 아쉬워요.

Q. 5년 뒤 은퇴 예정이라고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5년 뒤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A. 나이가 들면 노래하기가 어려워져요. 5년쯤 후면 저는 35년의 커리어를 갖게 될 테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까지 특별히 변하는 것 없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 때까지 계속해서 공연을 하는 것이죠.

Q. 은퇴 이후에 계획하는 일이 있다면?

A. 은퇴 후에는 오페라하우스나 페스티벌을 운영하고 싶어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유럽 어디선가 가능한 곳을 찾아 봐야겠죠.

Q. 시도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요즘 읽고 있는 시가 있나요? 한국 가곡도 시를 노랫말로 삼은 좋은 가곡이 많아요. 한국 가곡을 불러 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까요?

A. 가곡을 부르는 사람으로서 시를 사랑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괴테의 모든 작품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인터뷰는 국내 일간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취합, 정리한 것입니다.



피터 비스펠베이 첼로 리사이틀

Pieter Wispelwey Cello Recital



“피터 비스펠베이의
주체할수없는 독창성은 그를 우리시대의
위대하고 선구자적인 첼리스트로 만들었다”

- BBC 뮤직매거진 리뷰 중 -

ALL SCHUBERT PROGRAM

슈베르트 |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D.574, Op.162 | 환상곡 C장조 D.934, Op.159 | 아르케지오네 소나타 A단조 D.821 | 시든 꽃 주제에 의한 서주와 변주곡 D.802, Op.160

2019.9.24 TUE 8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THE XVI INTERNATIONAL
TCHAIKOVSKY COMPETITION



THE XVI INTERNATIONAL TCHAIKOVSKY COMPETITION

제16회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우승자 갈라 콘서트

CREEDIA

지휘 | 노리치카 이이모리 Norichika Iimori
디토 오케스트라 Ditto Orches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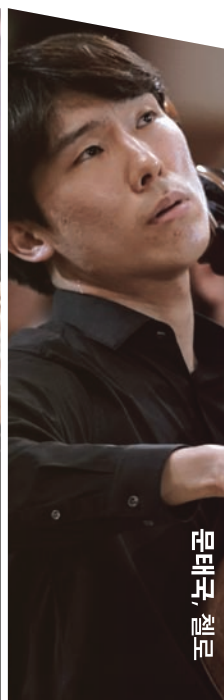
마오 후지타, 피아노



세르게이 도가엔, 바이올린



스티이고 카논 발렌시아, 첼로



민태국, 첼로

2019.10.15 TUE 8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미샤 마이스키 &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

지휘 토마스 체트마이어

CREZIA

MISCHA MAISKY | MUSIKKOLLEGIUM WINTERTHUR | THOMAS ZEHETMAIR



베토벤 에그몬트 서곡 Op.84 | 슈만 첼로 협주곡 Op.129 | 브루흐 콜 니드라이 Op.47 | 베토벤 교향곡 5번 Op.67 '운명'

2019.10.25 FRI 8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0.24.THU 강릉아트센터 | 10.26.SAT 대구콘서트하우스

지휘자 장한나가 이끄는 해외 오케스트라의 첫 내한!
특별한 무대에 화려함을 더할 피아니스트 임동혁

Han-Na Chang
&
Dong Hyeok Lim
Trondheim Symphony Orchestra

장한나 & 임동혁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

협연 피아니스트 임동혁



그리그 페르귤트 모음곡 1번 |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A단조 (협연: 임동혁) |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B단조 '비창'

2019.11.13 WED 8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1.14 부산문화회관 | 11.16 대구콘서트하우스 | 11.17 익산예술의전당

EXPERIENCE  EXPRESSION

세계 유명 피아니스트들이 선택하는 스타인웨이 피아노

CREEDIA



STEINWAY & SONS

피아니스트 : Yuja Wang

97%

솔리스트의 선택

세계적인 피아노 솔리스트들의 97%*가 선택하는 스타인웨이 콘서트 그랜드 피아노.
핸드메이드로 제작되는 스타인웨이 피아노는 예술성과 정밀함으로 완성된 걸작입니다.
그것이 166년 동안 세계 일류 피아니스트들의 선택을 받는 이유입니다.

* 2016 | 2017 년 기준

[주] 코스모스악기

스타인웨이 피아노 갤러리

피아노사업부 (02) 522-8844 | 부산지점 (051)804-8844 | 대전지점 (042)489-8844

대구지점 (053)629-8844 | 광주지점 (062)515-8844

COSMOSMUSIC.COM STEINWAY.COM



STEINWAY & SONS

SEONG-JIN CHO

조성진

도이치 그라모폰
세 번째 스튜디오 레코딩

“모차르트를 연주할 때면 항상 행복합니다.
연주를 즐기게 돼요” 조성진



일러스트 스티커
(스탠다드 버전)
사진 엽서 5종
(데럭스 버전)



[모차르트 론도 K.511]
디지털 싱글 9월 27일 발매 예정



DEBUSSY

[드뷔시]

피아노로 표현한 한 폭의
수채화를 감상하는 듯한 느낌!

영상 1, 2,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달빛 포함),
어린이 차지, 기쁨의 섬



CHOPIN PIANO CONCERTO NO.1 BALLADES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 & 발라드]

2015년 쇼팽 콩쿠르 우승!
연주곡 수록



UNIVERSAL MUSIC CLASSICS



www.universalmusic.co.kr



universalmusickoreaclassics



universalmusicclassickorea

마티아스 괴르네, 조성진
그리고 슈베르트

CREDIA

이 프로그램은 Club BALCONY 후원회원이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www.clubbalcony.com에서 공연을 예약한 후원회에 한함)

www.credia.co.kr

CREDIA MUSIC & ARTISTS

CREDIA
INTERNATIONAL

CREDIA
ENTERTAINMENT



CREDIA



CREDIA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클럽발코니닷컴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lub BALCONY.

www.clubbalcony.com